



## 개척하는 삶

- 「노인과 바다」를 읽고 -

박 원 기\*

한국해양대학교라는 특성화된 대학을 다니면서 내게 무엇보다도 진실한 것은 이를 항상 잊지않게 해 줄 어떤 매개체였다. 하지만 이를 학교에서 무심히 지나쳤고 우린 이것에 너무도 무관심했다. 하지만 이번의 이러한 행사는 졸업을 앞둔 내게 너무도 황금 같은 대학시절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게 해주는 것이었으며, 우리 학교의 이미지에도 어울리는 멋진 테마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한다.

난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을 선택했다. 이는 개척이라는 불굴의 의지 뒤에 숨어 있는 이상 실현의 허탈과 우리가 개척하려는 자연과 분리되어선 어떤 개척도 성사될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알려주는 작품이라 스스로 평하고 감명받은 작품이기 때문이다.

스타라는 신문사의 기자에서 20세기를 대표하는 대 작가의 한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헤밍웨이. 한사람의 작가라 하기 보다 인생의 모든 풍파를 찾아 일부러 이에 맞서 현실의 어떤 벽을 넘으려 했던 한사람의 고독한 인간. 알 수 없는 죽음의 원인(엽총 자살이란 결론지어져 있지만)으로 그 삶에 있어서 더욱 존경심과 미스터리를 우리에게 남기고 간 천재라 하기보다는 실행하는 문인으로서의 삶을 산 사람. 내가 헤밍웨이를 말한다면 위와 같이 말할 수 있다. 그는 당시의 세계적 사건의 최일선에서 현실을 몸으로 체득한 작가였다. 그런 그가 남기고 간 노벨 문학상의 수

\* 국제대학 법학부

상작인 「노인과 바다」는 우리에게 개척이라는 것보다는 자연과의 친화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순리의 힘을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 개척이 있음으로 우린 자연과의 친화가 있을 수 있다. 너무도 역설적인가? 인간이란 동물이 자연이라는 거대한 실험장(?)에 떨어어져 있을때 과연 아무런 변화없이 살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위의 말은 역설적일 수밖에 없다. 인간의 개척의지는 도전정신으로의 발로가 아닌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우린 「노인과 바다」에서 나오는 산티아고라는 늙은 어부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는 과거에는 힘을 장사처럼 쓰던 그 마을 최고의 어부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늙고 힘이 없음은 물론이고 84일간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단지 옛 영화를 추억으로 간직한 그런 노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은 채 다시 낚시를 하러 바다로 나간다. 그에게 있어서 낚시를 함은 생계를 잇기위한 수단이라기보다 자신의 자존심과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 볼 수 있다. 그가 느끼는 자신의 죽음은 실질적인 생물적 죽음이 아닌 자신의 자부심이 꺾이는 정신적인 죽음이었다. 그는 죽지않기 위해 다시 바다로 나가는 것이다. 아프리카 밀림에서 사자가 노니는 꿈을 꾸고 어떤 암시를 받은 그는 아침 일찍 바다로 나간다. 의욕이다. 자신의 성공을 확신하는 의욕이며 자신감인 것이다. 이제는 멋진 한탕으로 나의 위신을 살릴 수 있는 때가 왔음을 스스로 암시하는 것이다. 이는 스스로의 암시를 너무도 중요시 여기며 이를 신성시 여기기까지 한다. 그리고 성공을 확신하며 출발전에 스스로를 자축한다. 그가 낚싯대를 드리운 곳은 평소보다도 멀리 나온 바다의 한가운데이다. 인간은 하나의 섬이라고 표현한다. 군중속에 파묻혀 있지만 자의이건 타의이건 혼자만의 어떤 집을 스스로 들쳐업고 세상을 살아나간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나를 바라보는 이들은 많다. 그들의 나의 대한 평가를 두려워하며 인생의 역정을 외부와는 담을 쌓은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산티아고 역시 평소보다도 멀리 바다 한가운데에 나왔다. 자신의 욕망과 성공의 욕구는 그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리고 철저히 자신만의 힘으로만 이룩할 수 있는 어떤 환경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개척이다. 그리고 그는 낚싯대를 바다에 드리운다. 그가

개척하려는 것은 바다가 아니다. 바로 자신의 모습이다. 바다는, 이 자연은 누구에게도 개척되어지지 않는다. 그저 변화되어줄 뿐이다. 그 바다네 낚싯대를 드리운 그는 기다린다. 자신의 성공과 이제는 거대한 고기를 잡아 기세좋게 육지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며 일을 착수한다. 그리고 얼마 뒤 그가 드리운 낚싯대에 고기가 입질을 했다. 손맛으로 보아 아주 큰 녀석임이 틀림없다. 그 고기의 크기가 어찌나 큰지 그의 배를 끌고 도망가기 시작한다. 노인의 손엔 땀이 흐르고 그의 모든 정력을 그 큰 고기를 잡기 위해 낚싯대에 집중한다.

하지만 그 거대한 고기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녀석 역시 잡히지 않기 위해 그 육중한 몸을 바다 속으로 이끄는가 하면 다시 배의 주위를 선회하며 그 낚싯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려 한다. 그렇게 거대한 고기와 늙고 힘이 없는 노인은 힘겨운 사투에 들어간다. 지난날의 경력이 쌓여 있는 노인 역시 과거와 같이 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기의 의중을 간파하며 힘을 빼기 시작한다. 고기 역시 자신의 생존을 담보로 그 노련한 늙은 어부의 수중에서 벗어나려고 인간힘을 쓴다. 인간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것이 아닌 내게 지금 필요한 그 무엇이다. 각자의 개인차가 물론 존재함은 인정하지만 내게 지금 존재치 아니하는 내가 지금 얻고 싶어하는 열망에 가득 찬 욕구의 어떤 목적물이요, 실현이 모든 이에게는 가장 중요한 당장의 사안이다. 이는 남녀노소를 떠나 높은 수치의 정열을 부여한다. 노인은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바다로 나간다. 스스로의 힘으로 그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려 미지의 바다로 돌진했던 것이다. 바로 바다에 그가 원하는 거대한 고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녀석을 만났다. 여태껏 상대해 보지도 못한,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엄청난 고기이다.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고 인생의 개척은 물론 늙은 뒤의 서러움을 보상받고도 충분한 그런 녀석이다. 하지만 호락 호락 잡혀주지 않는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그가 준비해 간 식량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주린 배를 움켜잡고 미끼용 다랑어를 낚것으로 씹으며 그는 일생 일대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그리고 밤이 된다. 고기도 잠을 자는지 더 이상 도망가지 않는다. 노인도 잠시 쉰다. 하지만 이도 잠시, 힘겨운 둘의

전투는 다시 시작한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이미 노인 스스로가 선택치 아니하였다. 혼자만의 힘으로 그 거대한 고기를 잡는 것이다. 이렇게 둘의 전쟁은 사흘째 되는 날 노인의 승리로 돌아왔다. 힘에 부친 고기는 물 위로 떠오른다. 승리의 감격을 느끼며 노인은 그 거대한 고기의 숨통을 끊는다. 배보다도 더 큰고기를 그는 뱃전에 묶어 육지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그렇게 한다. 그는 성공했다. 자신의 인생을 이제 젊었을 때 못지 않게 빛내줄 걸작을 완성하고 의기양양한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성공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사람들 앞에 나서려 한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 듯 하다. 하지만 「노인과 바다」의 백미는 바로 여기서부터다. 그리고 나의 생각에 헤밍웨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려 하는 부분 역시 이 부분이라 본다. 그 죽은 거대한 고기의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노인의 뚝단배의 주변에 모여든다. 그 고기의 시체를 뜯어먹기 위한 이 반감지 않은 손님들과 노인의 전투는 다시 일어난다. 그는 그의 성공을 지키기 위해 이 고기를 낚을 때보다도 더욱 전념하여 이들을 쫓아 내려한다. 우리 모든 사람들 역시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여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을 투자한다. 마치 이것이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욱 소중한 것이라 생각하듯이…. 노인은 배에 있는 모든 무기라 생각하는 것들을 그 상어에게 던지고 때리고 쏜다. 하지만 상어떼들은 노인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 거대한 고기의 이곳 저곳을 냉큼 뜯어먹는다. 그는 더 이상 상어와 싸울 기력이 없다. 더 이상 싸울 무기도 없다. 그저 녀석들이 돌아가기만을 기다린다. 그리고 녀석들은 그 거대한 고기의 뼈만을 앙상하게 남긴채 하나 둘 돌아간다. 그리고 저 멀리 육지가 보인다. 노인은 할 말도 없고 앉아 있을 힘도 없다. 육지에 도착하여 노인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죽은 듯이 잔다.

노인은 최선을 다하였다. 그리고 성공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성공의 확신은 현실로 다가온 듯 했다. 그러나 이는 사라지고 만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허탈감과 자신의 무능력함이며, 당장 지금 필요한 것은 지칠 대로 지친 자신의 몸을 누워쉬게 할 집과 휴식뿐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함은 삶의 수단이다. 우린 너무도 이를 소중히 여긴다.

우리 인류는 지구의 곳곳을 누비며 필요한 그 무엇인가를 찾아다닌다. 그리고 이를 원래 그대로를 이용하여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면 기술과 인간만의 의지로 이를 인위적인 변형을 가한다. 인류 마지막 자원의 보고라 하는 해양 역시 이 자연의 무법자들에게는 예외는 아니다. 모든 국가들이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꽤 일찍부터였다. 그리고 근래에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니 영해이니 하며 서로 자신들의 관할 구역을 넓히려 애를 쓴다. 해저 밑바닥에 깔려 있는 짙 수 있는 자원과 어획량, 국가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영공의 확보, 영해의 확보. 이는 우리 모든 국가들의 야망이며 21세기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은 대양의 푸른 수평선을 바라보며 자신의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해양대 구성원일 것이다. 그 늙은 어부에 불과했던 산티아고가 생각하는 야망과 우리가 생각하는 해양에서의 야망은 그 방법과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를지라도 해양이라는 장소와 목적하고자 하는 것이 존재하는 목적지는 같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들은 삶의 수단이 된다. 인류에게 진보를 향한 굳은 의지와 이에 의해 얻어진 진보가 없었다면 인류는 아마도 오래 전에 공룡과 같은 신세가 되었을 것이다.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은 이를 암시한다. 개척의 의지는 무척이나 중요하고 그것의 동기가 무엇이 되었든지 그 용감한 행위를 실행하려 함과 미지에 대한 설레임, 본연의 것을 되찾으려 회귀하려는 본능적 욕구는 주위의 찬사와 격려를 받아도 마땅한 것이다. 그렇지만 단 한가지 잊으면 아니되는 것이 있다. 바로 자연과, 다시 말해 해양과의 상호보완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류는 너무도 오랜 시간을 진보의 역사 속에서 이를 무시하여 왔다.

개척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열려 있다. 무엇이 무서운가. 나가자. 너무도 많이 산재하여 있는 저 대양에서의 우리의 할 일과 아직도 어두운 베일에 쌓인채 우릴 기다리는 너무도 많은 것 같은 일들... 젊은이가 할 수 없는 일은 단 한가지 젊음을 되돌리려 하는 일뿐, 패기와 용기와 고집, 그리고 이상이 있다. 무수히 널려 있는 젊음의 가능성은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렇게 인류는 진보해 왔다.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은 자연주의, 유태주의 문학의 장르에 속한다. 2차 세계대전 전후의 그 수많은 인류의 개척의 역사 속에서 하드보일드 문학의 거장인 헤밍웨이가 쓴 몇 안 되는 그런 장르의 문학인 셈이다. 위에서 많은 언급을 했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의 개척이라는 단어는 그 거창한 느낌의 뒷면에 많은 파괴와 되돌이킬 수 없는 황폐함을 가져 왔다. 그리고 개척은 인간의 욕심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일까? 그 파괴와 황폐함의 결과는? 난 이 글에서 '그렇다'라고 결론을 지으려 한다. 서구 문명의 개척의 역사는 해양을 통하여 아메리카 대륙으로, 아시아 대륙으로 이루어져 왔다. 역시 모든 결과는 말할 수 없는 물질문명으로서의 눈부신 진보의 혜택과 돌이킬 수 없는 파괴, 즉 아시아와 아메리카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문화의 붕괴, 환경의 파괴, 자아의 상실이 이루어 졌다. 역사의 고리는 순환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진보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시 과거로의 회귀현상이라 하겠다. 해양으로의 개척과 전 세계로의 우리 젊은이들의 개척의지는 이 대양시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 자세이다. 하지만 우린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산티아고를 잊어서는 아니된다. 우리가 이루려는 개척의 시간은 전우주의 시간에서 보았을 때 티끌의 순간에도 미치지 아니한다. 이루었다함을 다 이루었다고 느낄 수가 인간의 욕망에서 있을 수 없듯 우리가 나아가려는 이 해양과 미지의 세계로의 개척 역시 자연과 동떨어진 상태에서는 있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의 진보는 개척정신이 일궈온 산물이라 할 수 있지만 생각해보자. 과연 이 상태로의 개척에 종착역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를. 인간들이 지쳐 쓰러져 그저 자신의 휴식처만을 그리워하는 날은 아마도 인류 멸망의 날이 분명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자연은 우리의 삶의 수단이 아닌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필수요건의 삶의 터전임을... 개척정신의 올바른 인식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이다. 자연은 우리에게 개척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변형시켜 줄 뿐이고 너무도 변형된 자연은 우리에게 다시 종말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